

Binding theory

양 우 진*

1960년대는 언어학 연구의 변혁기라 할 수 있다. Chomsky가 언어의 연구방법을 지금까지 언어의 외적요소 즉 구조주의적 연구방법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언어 연구는 인간의 심적 상태를 연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합리주의(Rationalism)에 입각한 언어학 연구가 진정한 언어연구라고 주장하는 변형-생성문법이론(transl-ormational-generative gramma)이 나온 해이다. 과거 30여년 동안 이 이론이 성장 발전하면서 수정, 보완되며 세계 언어학 연구의 주류를 형성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회고컨대, 합리주의적 학문 연구방법은 과거 Descartes때에도 있었으나 이는 너무나 추상적이며 Science로서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Chomsky는 연구대상 즉 참 연구대상(Real object)을 인간의 마음 속에 둔 합리주의(Rationolism)적 바탕에 근거하고 있으나 이를 공식화(Formaliged)하고, 학적인 이론을 전개했다는데서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미래학문 즉 2천년대 학문의 방향을 제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래학문, 즉 2천년대 학문의 방향은 우리는 2가지 방향으로 발전될 것은 확실하다고 본인은 생각한다. 하나는 인본주의적 방향, 즉 합리주의적 방향으로의 연구며 다른 하나는 Computer에 의한 방법이다. 이에 변형-생성문법(tkansfor mational-generatire gramman)은 미래를 약속한 학문 이론이라고 믿는다.

변형-생성이론(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에 입각한 언어학 연구가 시작되지도 어언 30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동안 이 이론도 많이 수정 보완되었다.

Chomsky의 언어학이론이 변천과정을 살펴 보면 4단계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1965년에 발표된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을 표준이론(Standard theory)이라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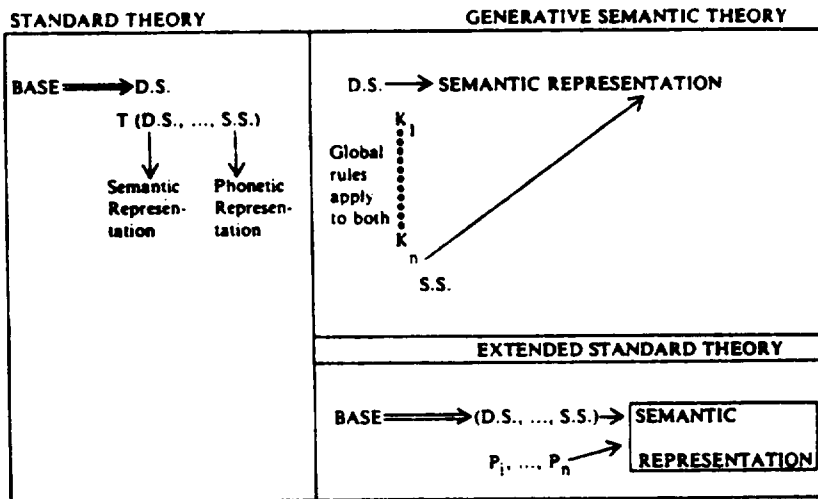
* 人文大學 副敎授

둘째는 1973년에 발표된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를 중심으로 하는 이론을 확대표준 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이라 부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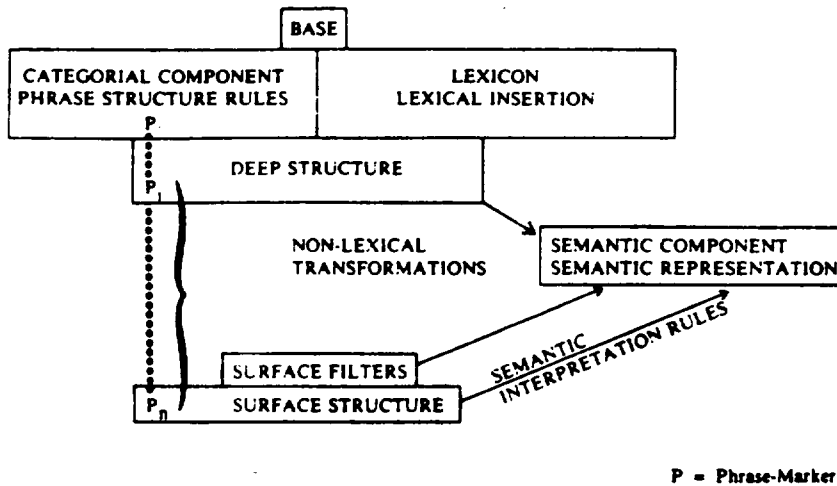
셋째는 1975년에 발표된 Reflections on Language. Essays on Form and interpretation(1977)을 중심으로 하는 이론을 수정확대표준이론(Revised Extended Standard Theory)이라 한다. 그리고 1980년대를 흔히 GB theory(Government-Binding theory) 시대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성장, 보완하여 온 변형문법이론을 총 집대성하여 대단원을 이론 시기라고 한다.

Barbara England(Glossarized charts of Noam Chomsky's Grammar: 1978, pp.49-55)에 의하면 표준이론, 확대표준이론, 수정확대표준이론을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Chomsky의 강의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다.

Chomsky says that the real difference between the Standard and the Extended Standard and Generative Semantic Theories is that in the Standard Theory a semantic interpretation is made only in the deep structure, whereas in the other two theories semantic representation appears in the surface structure. (Class lecture at M.I.T., May 8, 1975)



THE SYNTACTIC COMPONENT OF
THE EXTENDED STANDARD THEORY
(as of May 19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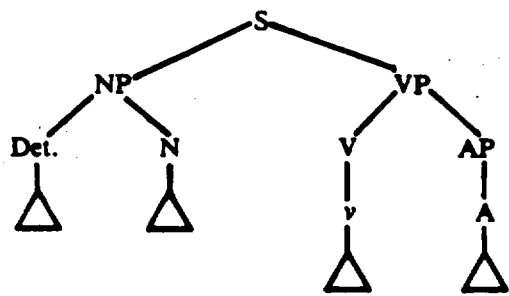


P = Phrase-Mar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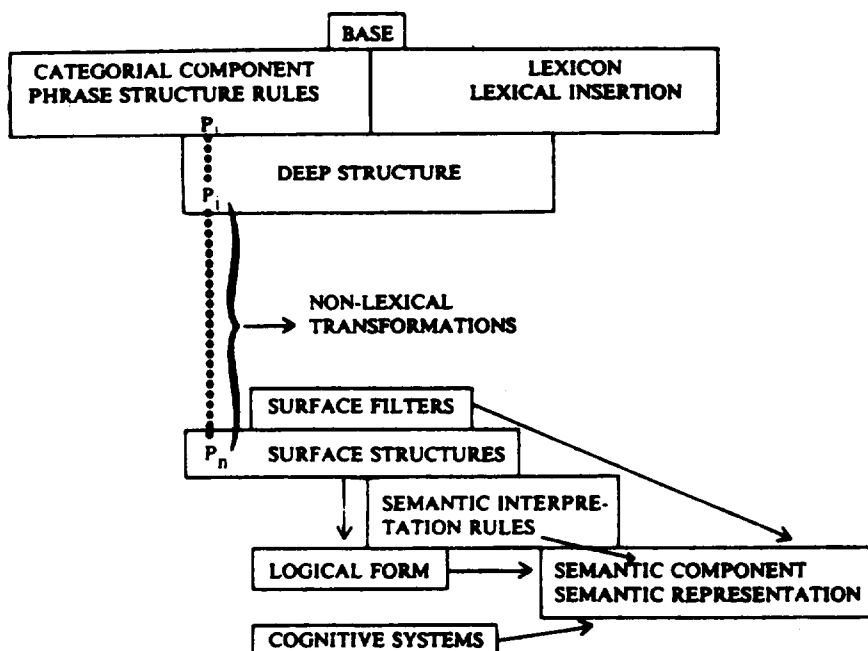
THE CATEGORIAL COMPONENT:
PHRASE STRUCTURE RULES:

“The branching rules of the base (that is, its categorial component) define grammatical functions and grammatical relations” (1965, p. 136).

- S → NP, VP
- NP → (Det), N, (S)
- VP → V, { NP }
 { AP }
- V → v
- AP → A



**THE SYNTACTIC COMPONENT OF THE
REVISED EXTENDED STANDARD THEORY
after May 15, 1975 (later called the "Trace Theory")**



(checked by Howard Lasnick, May 15, 1975)

(where P = Phrase-Marker)

The surface structure is generated with "trace" as a record of movement rules. Where the Extended Standard Theory left a "trace" of Deep Structure through labeled-bracketing, the Revised Extended Standard Theory leaves a "trace" from the movement ru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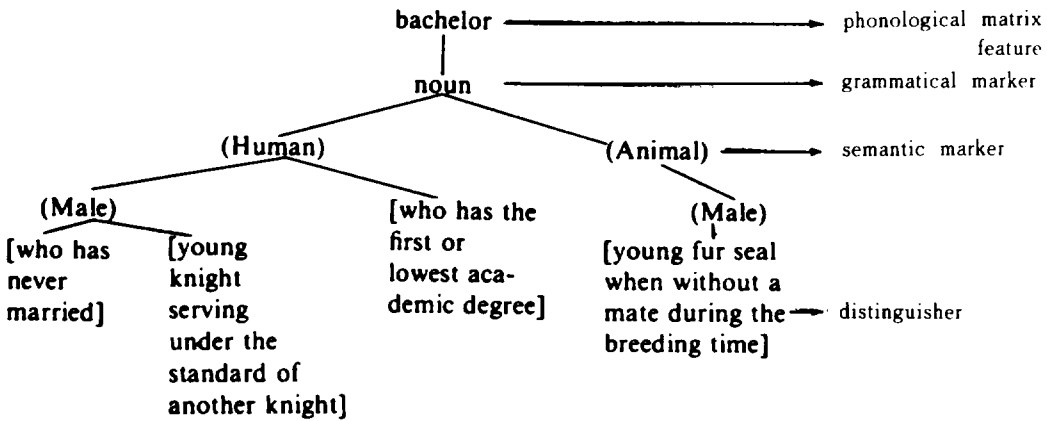
...t₂...t₁...t₀...

(class lecture at M.I.T.,
May 15, 1975)

70년대를 언어학의 황금기라 하고 이때 많은 이론들이 나왔다.

Chomsky의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약간 방향을 달리하고 있는 Katz, Fodor를 중심으로 한 해석의미론(Interpretive Semantics), 이는 심층구절표지(deep structure phrase marker)를 도출해 내는 통사부의 구절구조규칙(phrase structure rule)들이 각 문장의 통사적 구조와 어휘적 내용을 밝혀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Katz(The philosophy of Language; 1966, pp.151-75) 에 의하면



한 어휘가 다른 어휘와 결합할때 선택제한(Selection Restriction)을 받는다. 이는 어휘속에 내재하고 있는 그 어휘의 특성(Lexical Feature)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는 음성표시(Phonological feature matrix), 문법표시(Grammatical marker), 의미표시(Semantic marker), 변별소(distinguisher)이다.

투사규칙(Projection Rule)에 의하여 하나의 어휘가 다른 어휘와 결합하면서 최종 마디인 S에 도달하게 된다. 이 S마디는 이를 포함한 모든 마디에 해독(Readings)들을 가진 심층구조구절표시(deep structure phrase marker)가 된다. 이것을 「의미상으로 해석된 기저 구절 표시(Semantically interpreted Underlying phrase marker) 즉 SIUPM」이라 한다.

문장을 이루고 있는 어휘들의 의미를 상술하며, 통사적구조의 형성에 따라 어휘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구(Phrase)와 문장(Sentence)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상술하여 밝혀준다.

어휘의 의미는 사전에 주어져 있는 것으로 가정되며 여러가지 해석(Readings)을 갖는 어휘는 그 여러가지 해석이 사전에 밝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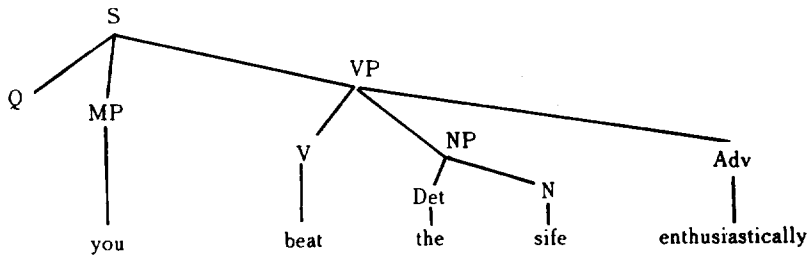
이 해석의미론(Interpretive Semantics)은 표준이론(Standard theory)을 비판하면서 발전했으나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이 나오면서 거의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여기서 잠깐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는 표준이론(Standard theory)을 비판하며 발전시킨 이론인데, G. Lakoff, McCawley, Postal, Ross 등을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자 들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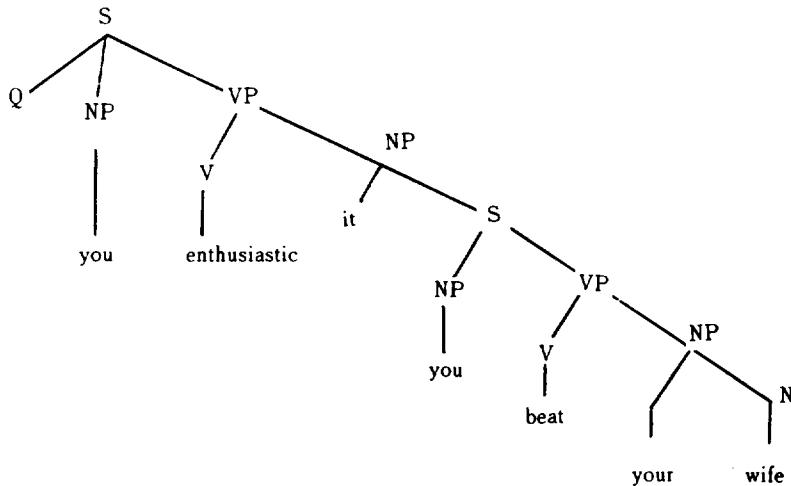
Chomsky의 ST-모형에서는 문장의 의미정보가 모두 심층구조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EST-모형에서는 문장의 의미정보가 심층구조, 변형구조부위, 표층구조에서 두루 얻는 것으로 되고 있다.

생성미론(Generative Semantics)에서는 ST-모형을 따라 의미정보를 심층구조에서 얻는다는 입장을 살릴려는 노력이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ST-모형은 심층구조가 의미정보를 충분히 전해 주지 못하므로, 더 추상적인(abstract) 보다 깊은 심층구조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제안하는 심층구조란 바로 의미구조와 동일한 것이 된다. 즉 심층구조가 표층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들 보다는 더 추상적인 의미표지로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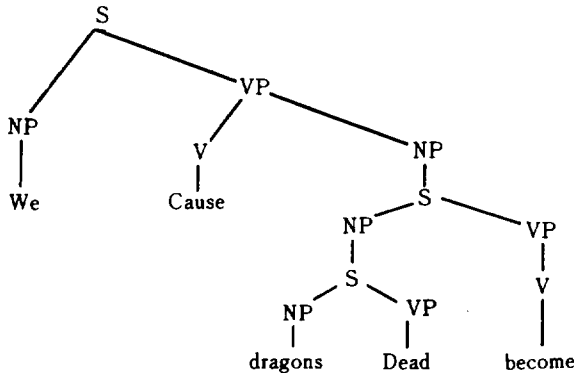
Lakoff의 심층구조 표현과 Chomsky의 심층구조 표현을 비교하여 보면 Do you beat your wife enthusiastically? Chomsky의 ST-모형에 따르면



Lakoff의 Generative Semantics적 방법으로



Mac Cawley의 심층구조 표현을 보면 We Killed dragons.



이상으로 볼때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에 의한 심층구조 표현은 너무 추상적이고, 복잡하여 커다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60년대말 70년대초 실로 언어학의 황금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이외에도 Fillmore의 Case grammar, Kuno의 기능문법(Functional grammar) 등이 있으나 Chomsky을 중심으로한 표준이론, 확대표준이론, 수정확대표준이론과 해석의미론(Inter Preitive Semantics),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이 주류를 이루면서 연구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80년대에 접어들면서 Chomsky가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을 1981년에 출판하면서 드디어 언어학에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이론을 종합 집대성하고, 새로운 각도로 언어학 연구 방향을 제시한 GB이론을 내용으로서 언어학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게 되어 언어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과학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이 GB이론은 미래가 약속된 이론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언어를 인식한다는 것은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언어학 연구는 언어의 본질(its nature) 언어의 근원(its origins) 언어 사용(its use)의 세가지 문제를 포함하여 Chomsky(1984)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① When Constituents Knowledge of language?
- ② How is Know ledge of language acquired?
- ③ How is Know ledge of language used?

이와같은 문제는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야기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인식과학(Cognitive Science)의 발달을 가져왔고, 언어를 통해서 인간 정신의 내재적 속성을 밝혀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해주었다. 즉 언어의 연구는 참대상(Real object)을 찾아 연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인간의 심적상태에서 찾는 것이 진정한 언어학 연구인 것이다.

언어란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를 깊어 연구하는 것은 인간이 언어를 어떻게 창조해 내는 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유심적 실재(Mental Reality)를 천부적으로 타고 나는데 이것은 인간 사고능력 즉 창조적 특성(Creatirve Aspects)을 가지고 있다.

사고의 응집체가 기저(Base)가 되고 기저야 말로 모든 것이 근본이 되는 형성체인 것이다. 이런 심적상태(Mental state)을 규칙의 체계(Rule System)와 원리의 체계(System of Principles)로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문법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GB이론인 것이다.

Chomsky(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1982, pp.7-8)에 의하면

In the course of this work, there has been a gradual shift of focus from the study of rule systems, which have increasingly been regarded as impoverished (as we would hope to be the case), to the study of systems of principles, which appear to occupy a much more central position in determining the character and variety of possible human languages.

라고 하므로써 70년대 문법이론은 규칙의 체계(Rule system)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으나 GB theory에서는 원리의 체계(System of principle)을 주된 연구이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규칙의 체계는

A) 어휘부(Lexicon)

B) 통사부(Syntax)

① 기저부(Base Component)

② 변형부(transformational component)

C) 해석부(Interpretive component)

① PF Component

② LF Component

즉 과거 변형문법은 이상의 규칙의 체계를 연구하는 것을 주된 연구로 삼았다.

그러나 GB이론에서는 원리의 체계(System of Principle) 즉

A) X-bar theory

B) 주제 이론(Q-theory)

C) 격이론(Case theory)

D) 결속이론(Binding theory)

E) 한계이론(Bounding theory)

F) 통제이론(Control theory)

G) 지배이론(Government theory)

이상의 원리의 체계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하는 것이 GB이론인 것이다.

GB이론에서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언어학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장으로 언어학 연구를 시도한 이론인데 특히 공범주(Empty Category)의 설정은 한층 합리주의(Rationalism)적 연구를 구체화 하는데 성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A) It is unclear what to do

B) It is unclear [what PRO to do t]

A') I bought Bill a book to give to Marry.

B') I bought Bill a book [PRO to give t to Marry]

지금까지는 A, A' 문장에 나온 구성소(Constituent)만을 놓고 문장을 분석하여 문법적인 설명을 했다.

여기에 많은 오류가 생기고 애매한 문장분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B, B'에서 보여 준 것처럼 GB에서는 문장분석을 하는데 구성소가 하나 더 첨가되어 어휘특성을 정확히 알 수 있으므로 과거보다 훨씬 문법적 설명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PRO, pro, trace, Variable의 4가지 공범주(Empty Category)를 설정하여 이에 대한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70년대 언어학 연구에서 생각도 못했던 새로운 문장분석과 문법설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범주의 설정은 GB이론 이전의 언어학 연구는 백지화가 되다시피 했다.

Chomsky(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1981, p.56)는 공범주(Empty Category)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i) trace is governed
- (ii) the antecedent of trace is not in a θ -position
- (iii) the antecedent-trace relation satisfies the subadjacency condition

PRO lacks all of these properties: it is ungoverned; its antecedent (if there is one) has an independent θ -role, as does PRO; the antecedent-PRO relation (where PRO has an antecedent) need not satisfy the subadjacency condition. Furthermore, PRO need have no antecedent, as in (3), while trace always has an antecedent:

공범주(Empty Category)의 설정으로 앞으로 언어학 연구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오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 또한 80년대 언어학의 연구의 개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문법연구는 어휘부(Lexicon)에 주어지는 모든 통사적 정보(Syntactic information) 및 의미적 정보(Semantic information)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Chomsky는 어휘범주를 실재사(Substantive)[+N], 서술어(Predicative)[+V]의 두개의 범주에 기반을 두어 [+N][+V]는 형용사, ([+N][-V]는 명사(Noun), ([-N], [+V]는 동사(Verb), ([-N], [-V])는 전치사(Preposition)을 나타내고 있다.

명사, 동사, 형용사는 어휘범주(Lexical Category)에 속하지만 전치사는 어휘범주(Lexical Category)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N][-V]의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는 NP [+N][+V]의 최대투사는 AP, [-N][+V]의 최대투사는 VP, [-N][-V]의 최대투사는 PP이다.

NP, VP, AP, PP 4개의 품사로 Chomsky는 분류를 하고 있는데 각 어휘범주(Lexical category)는 머리(head)와 보어(Complement)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머리는 보어를 지배한다는 것이 지배이론(Government theory)이다.

동사특성(Verb Properties)과 명사위치(Noun Position)가 문법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결속이론(Binding theory)은 이를 바탕으로 NP와 NP 사이에 결속여부를 가려내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α is bound by β if and if only

- 1) α and β are coindexed 2) α is c-commanded by β

대용사(Anaphor-reciprocal pronoun, reflexive pronoun, NP-tace)는 지배범주(Governing Category)안에서 결속(bound)이 되어야 하고, 대명사(Pronoun)은 결속인(bound)이 되지 않아야 하며, 지시적 표현(R-expression John, Marry등)은 어느 곳에든지 자유(free)로워야 한다는 것이 결속이론(Binding theory)이라고 한다.

Chomsky(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1981, p.188)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이론을 언급하고 있다.

Binding The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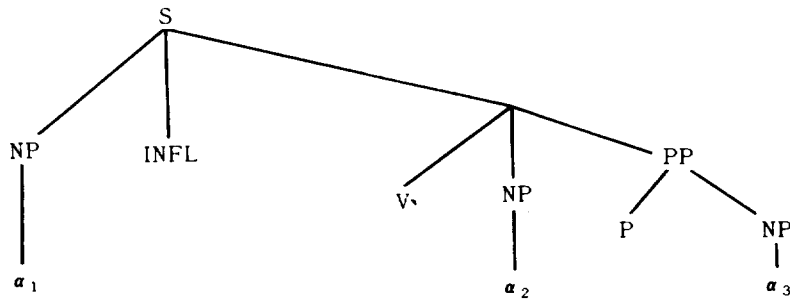
- A) An Anaphor is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 B) A Pronominal is free in its governing category
- C) An R-expression is free

Governing Category

α is the governing category for β if and only if α is the minimal category containing β and a governor of β . Where $\alpha = NP$ or S.

여기에서 몇개의 문장을 결속이론(Binding theory)에 의하여 분석해 보고져 한다.

- ① *We thought each other gave the books to Bill.



α_1 이 대용사(Anaphor)인때를 생각해 보자.

우선 대용사(Anaphor)는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α_1 이 대용사(Anaphor)이면 일차적으로 NIC(No minative island Conditionk)에 위배된다.

결속이론(Binding theory) A에 의하면 Anaphor는 Bound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bound된다는 것은

- ① Coindex ② C-Command ③ Governing Category 세가지 조건이 따라야 한다.

*Each other gave the books to Bill 문장에서 볼때 Each other는 Anaphor이다. Each other는 ① C-Command가 되지 않는다. ② Coindex가 되지 않는다. ③ NIC에 위배된다. 그러므로 위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즉 Himself, Myself와 같은 제귀대명사도 Anaphor이므로 Each other 위치에는 놓을수가 없다.

R-expression이 그 위치에 있을때를 생각해 보면, R-expression은 free이므로 어떤것을 놓아도 상관이 없다. 가령

Bill gave the books to Bill이라고 했을때 주어진 Bill과 to Bill에서의 Bill은 다른 사람이다. Pronominal이 그 위치에 있을때를 생각해 보면

a. He_i gave the books_j to Bill_k

b. He_i gave the books_j to Bill_i

㉔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이나 ㉕문장은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왜냐하면 ㉔는 Binding theory β 에 위배되지 않지만 ㉕는 위배된다. 즉 He는 Bill의 Governing Category이기 때문이다.

위 도표에서 α_2 가 Anaphor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They introduced each other to Bill.

they는 α_2 인 each other를 C-Command 하고 있다. they의 첫번째 branching node인 S는 α_2 인 each other도 dominate하고 있다. 또한 α_1 과 α_2 는 서로 dominate 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α_1 C-Command α_2 이며, 또한 they와 each other는 Coindex가 되어 있고, they는 each other의 Governing Category이므로 they는 each other를 bound하여 Binding theory A을 만족시키고 있어 문법적 문장이다.

*He introduced each other to Bill.

α_1 인 He는 α_2 인 each other를 C-Command하고 있으나 Coindex가 되지 않으므로 α_1 인 He는 α_2 인 each other를 bound하지 못해서 Binding theory A에 위배되므로 이 문장은 비문법적 문장이다.

*They introduced $\left[\begin{array}{c} \text{himself} \\ \text{myself} \end{array} \right]$ to Bill.

위 문장에서 α_1 인 they와 α_2 인 himself, myself가 coindex되지 않아 they가 himself, myself를 bound하지 못하므로 Binding theory A에 위배되므로 비문법적 문장이다.

a. They_i introduced themselves_i to Bill,

b. *They_i introduced themselves_j to Bill_k

㉔ 문장은 they와 themselves가 Coindex되는 경우이므로 Binding theory A에 위배되지 않지만 ㉕ 문장은 they와 themselves가 Coindex되지 않으므로 Binding theory A에 위배되어 비문법적 문장이다.

- ㉑ *They_i expected me_j to introduce each other_i to Bill.
- ㉒ They_i expected me_j to introduce them_i to Bill_k

㉑문장의 경우는 비문적이다. 왜냐하면 they와 each other는 coindex되지만 ① C-Command가 되지 않고 ② They는 each other의 Governing Category속에 들지 않으므로 Binding theory A에 위배된다.

그러나 ㉒ 문장의 경우는 ① they는 them을 C-Command하지 않고 ② They는 them의 governing category가 아니므로 They와 them이 coindex되더라도 Binding theory B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문법적 문장이다.

- ㉑ John introduced him to Bill.
- ㉒ John expected me to introduce him to Bill.

㉑문장에서의 him은 John이 아니지만 ㉒문장에서의 him은 John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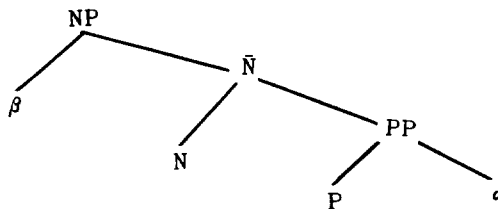
왜냐하면 ㉑문장에서 him과 him의 governor를 포함하는 첫번째 category는 S이므로 John은 him의 governing category 속에 든다. 그러므로 Binding theory B에 의하면 pronominal은 free 이어야 하므로 John과 him은 Coindex가 되어서는 안된다.

NP가 주어 역할을 갖고, 목적어도 갖는 마치 하나의 문장과 같은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Np는 동사의 특성verb properties를 갖고 있는 것이다.

다음의 예문을 분석해 보자.

Their stories about each other.

이 경우 their는 stories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β가 NP의 주어인데 α가 anaphor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 ① β는 α를 C-Command하고 있고
- ② α의 Governing category는 NP이므로 β는 α의 governing category속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α가 anaphor인 경우 β와 α는 coindex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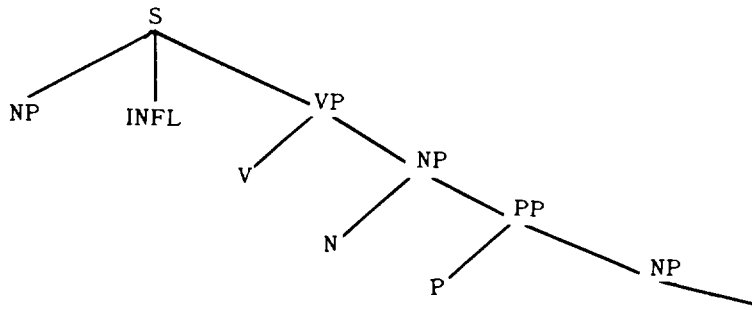
*Their stories about myself

Theirk는 myself를 governig category에 포함되지만 Coindex가 되지 않으므로 Binding theory A에 위배되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㉑ *We heard his stories about each other.

㉒ We heard some stokes about each other.

㉑문장의 경우 his는 each other을 C-Command하고, each other의 governing category속에 his가 들어간다. 그러므로 Binding theory A에 의하여 NP의 주어인 his와 each other는 coindex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㉑는 비문법적이다. 그러나 ㉒의 문장의 경우는 문법적인 문장이다.



NP인 each other을 포함하고 NP을 govern하는 P인 about을 포함한 minimal category는 Np인 some stories about each other이다. 그러나 이 Np속에는 주어가 없으므로 each other의 governing category는 이 경우 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S의 주어인 we가 each other의 governing category속에 포함된다. 또한 we는 each other을 C-Command하고, Coindex하므로 Binding theory A에 위배되지 않아 이 문장은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가령 ㉑ 문장에서 each other대신 himself을 쓰면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만 ㉒문장의 경우 each other 대신에 himself을 쓰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㉑ John's_i painting of himself_i.

㉒ *John's_i painting of him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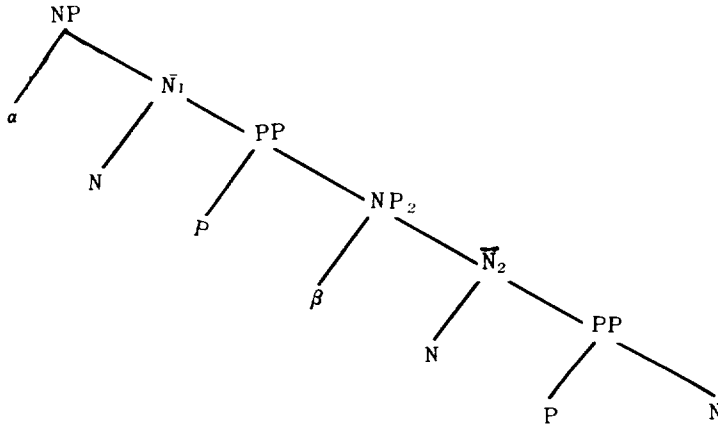
㉓ John's_i painting of him_j.

㉑ ㉒ ㉓에서 John은 전체 Np의 주어이고 himself, him은 painting이 목적어이고, of는 himself, him에서 격을 주기 위해서 집어넣은 insertion "of"이다.

㉑는 Binding theory A에 의하여 문법적인 문이지만 ㉒는 Binding theory B에 위배되므로 비문법적 문장이고 ㉓는 Binding theory B에 의하여 문법적인 문장이다.

㉑ *Marry_i recollection of [John's_j Painting of herself_i]

㉒ Mary's_i recollection of [john's_j Painting of her_j]



㉔에서 herself의 governing category는 NP₂이고 NP₂의 주어인 John은 그 category속에 포함된다. 그리고 β인 John은 herself를 C-Command한다. 그러나 John과 herself는 coindex가 되지 못하므로 Binding theory A에 위배된다.

Mary와 herself는 Coindex가 되고 Mary는 herself를 C-Command하지만 herself의 governing category속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Binding theory A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장은 비문법적이다.

㉕에서 John은 her의 governing category속에 포함되지만 Mary는 her의 governing category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Binding theory B의 적용을 받아 문법적이다.

이상에서 볼때 우리가 문법연구에서 지금까지 범하기 쉬운 여러가지 점을 GB이론에 입각한 결속이론으로 그 이유까지를 명쾌하게 설명했다고 본다.

Chomsky(1982: p.78)는 결속이론(Binding theory)에 의한 다음과 같은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 a) [+anaphor, -pronominal]
- b) [-anaphor, +pronominal]
- c) [+anaphor, +pronominal]
- d) [-anaphor, -pronominal]

㉔는 overt category로써는 reciprocal pronoun(each other), reflexive pronouns(himself, herself, ect), 그리고 Empty category로서는 NP-trace이다.

㉕는 overt categories로서는 대명사(he, she, I, ect)이며 Empty category로서는 pro('small' or 'little' pro)이다.

㉖는 overt categories로서는 R-expression(John, Mary, ect)이며 Empty Category로서는 wh-trace(or variable)이다.

©인 경우는 결속이론 A, B에 의하여 지배되지 않기 때에 격(case)을 가질 수 없고 공범주(Empty category)이어야 하므로 PRO('big' PRO)이다.

본 논문에서는 언어학이 독립된 학문으로서 완전히 자리를 굳힌 시기라고 할 수 있는 60년대초, 즉 표준이론(Standard theory)을 시점으로 하여, 이에 파생된 확대표준이론(Extended Standard theory)을 중심으로 해석의미론(Interpretive Semantics), 생성의미론(Generative Semantics)에 대한 비교, 검토를 간략히 함으로, 언어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고, 미래가 약속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80년대 언어학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GB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다. 또한 GB이론을 요약 설명하고 GB이론 중에서 중요한 원리(Principle)의 하나의 결속이론(Binding theory)을 다루었다. 즉 결속이론의 배경과 현주소를 설명함으로서 결속이론(Binding theory)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다.

언어학 연구의 하나의 원리(Principle)이며,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에의 접근에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결속이론(Binding theory)을 본 논문에서는 다루었는데, 이 이론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몇개의 예문을 들어 분석하고, 이 이론을 적용함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에 의한 문장분석을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학문적 이론의 값어치는 그 이론의 현실성과 미래성, 그리고 세계성이 있는 원리로서의 확실성 등이 중요한 조건이 된다. 언어학 이론은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에의 접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참연구의 대상(Real object)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합리주의(Rationalism)적 방법에 의한 마음속에 두어야 하고,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원리(Principle)을 찾아내어 연구하는 것이 진정한 연구인 것이다. 이 결속이론(Binding theory)은 이와 같은 원칙에 입각한 이론인 것이며, 미래지향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 Katz, J. J. (1966). *The Philosophy of Language*. New York: Harper & Row.
- Lakoff, G. (1970). *Irregularity in Syntax*. Holt, Rinehart & Winston.
- McCawley, J. (1973). *Grammar and Meaning*. Tokyo: Taishukan, and New York: Academic Press.
- Barbara England (1978). *Glossarized Charts of Noam Chomsky's Grammar*. Indiana: Physaridt Publication.
-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MIT.
- _____ (1973). *Conditions on Transformations in Andersons and Kiparsky(eds)*, 232-86.
- _____ (1975). *Reflections on Language*. Temple Smith.
- _____ (1977). *Essays on Form and Interpretation North-Holland*
- _____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Foris. Dordrecht.
- _____ (1982). *Some concepts and Consequences of the theory of Government and Binding*. MIT.
- _____ (1985). *Knowledge of Language: its Nature, Origin and Use*. New York. Praeger.
- _____ (1986). *Barriers*. MIT.
- Henk Van Rinemsdijk and Edwin Williams. (1986). *Introduction to the Theory of grammar*. MIT.
- Peter Sells (1985). *Lectures on Contemporary Syntactic Theories*. Stanford.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Abstract

Binding Theory

Woo-jin Yang

Among the varied observation and proposals about the study of language within the framework of generative grammar, three theories can be distinguished that have been developed in some details. Katz has formulated a theory often referred to as INTERPRETIVE SEMANTICS. More recently, Chomsky and Jackendoff have proposed a rather different but also 'interpretive' theory which has been called the EXTENDED STANDARD THEORY. This is a modification of the STANDARD THEORY, the theory outlined in Chomsky's ASPECTS(1965), which represents roughly the last major work in generative linguistics before opinions about linguistics and they began to diverge. Katz's theory, though it has been developed in variety of ways since ASPECTS, still accepts the fundamental premises of the standard theory. The first significant breaks from the standard theory were made by Gruber and Fillmore, whose proposals are related to the theory of GENERATIVE SEMANTICS developed by Lakoff, McCawley, Postal, Ross and others.

The grammar of a language can be regarded as a particular set of values for the parameters, while the overall system of rules, principles, and parameters is UG(universal grammar), which we may take to be one element of human biological endowment, namely the "language faculty". The approaches to UG that seem to us most promising fall within the general principles of GB theory.

Binding theory is concerned with the relations of anaphors and pronominals to their antecedents, if any.

I have described a partial theory of the distribution of lexical NP, NP-trace, pronoun, reflexives, and PRO—specifically, the part of the theory that concerns binding and disjoint reference among these items. The system can be summarized as one rule and three conditions

a. Rule; "Index NPs freely"

b. Conditions;

1) A bound anaphor(or a potentially anaphoric item in environment of bound anaphora) must be bound in the smallest domain-of-a-subject in which it occurs.

2) A pronoun must be free in the smallest domain-of-a-subject in which it occurs.

3) A lexical NP must be free in all domains.